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찬 양 I. 그 이름 예수 마중물찬양대
 II.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참빛찬양대

말 씬 광야로 나간 까닭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49.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때
 때로 광야같이 거칠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
 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
 사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새
 삼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
 다. 주님께서 힘써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
 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배추 속고갱이를 위해

8월부터 저의 일상은 그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저의 주무대가 양평 샘터 이외의 조금 벗어난 두 지점에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한 곳은 서울 혜화 사무실이고 또 한 곳은 파주 운정 사무실입니다. 말하자면 저의 샘터 사무실이 제1사무실이라면 제2, 제3의 사무실이 생긴 것입니다. 혜화동에는 딸 샘이·사위 상민·손자 서진 가정, 운정에는 아들 한별이·며느리 한솔이·손자 지음이 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착하고 좋은 할머니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빈 적이 없지만 외할머니는 늘 말없이 인자하고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외할머니는 그리 예쁘지는 않았지만 여름 방학마다 찾아가 쌓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외할머니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려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개척자들이 제주로 옮길 것을 의논할 때, 저도 당연히 따라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구들 밥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제주 상황에 굳이 내가 살림을 하러 가야 하는가, 내가 맡은 업무는 개척자들 소식지 편집과 행정, 재정 업무로 주로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서 어디든 노트북만 들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육지에서 백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기에 제가 내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샘터와 혜화, 운정을 넘나들며 당면한 일들을 하면서 친할머니로서, 외할머니로서 그들의 필요에 때때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 좋은 할머니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쌓여가는 관계의 즐거움이 덤으로 주어지는 아주 행복한 할머니도 되고 있고요.

문득 한별이와 샘이를 기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한별이가 3개월 지난 후 모유가 줄어 우유를 먹이게 되었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아예 한별이를 데리고 주무셨습니다. 저로서는 밤마다 몇 번이고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 줄 일에서도, 새벽에 우유를 타서 먹이는 일에서도 자유로워져서 긴 통 잠을 잘 수 있는 그야말로 땡잡았던 일이었지만 부모님께는 그게 즐겁다고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때 얼마나 큰 도움을 입었는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샘이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는 한별이를, 아버님은 샘이를 단짝 친구로 삼아 커버해 주셔서 제가 누린 여유 또한 참 컸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이는 배추 속고갱이 같은 것이라고. 거칠고 뾰뾰한 배추 겉잎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이고 그 안에는 엄마 아빠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가장 연하고 고소한 노란 속고갱이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배추 겉잎에는 상처도 있고 세월에 따라 박힌 무늬도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젊음을 불사르고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세월의 훈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 몸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하순에 그 동안 개척자들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에게 1년 동안의 사역을 알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후원자들의 연락처들을 할 수 있는 한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척자들의 후원자들은 참 긴 시간을 두고 소리도 없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배추 겉잎으로 우리를 품고 있었다는 따뜻한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또한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개척자들에 대해 보내주시는 신뢰가 몸 둘 바를 모르게 했습니다. …

- 조정래(‘개척자들’의 살림지기)

*‘개척자들’은 재해 및 분쟁지역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로 2005년부터 청파교회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엽서

안영희

잘 있다는 인사말만

달랑 적어 보낸 엽서

생략한 수천 마디

마음으로 헤아려져

진종일 사립문 밖을

서성이는 내 마음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곽새롬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 순 김광일 이부용 김근중 정옥영 김금순
김명숙 김명하 오형일 김성순 김영옥 김종락 박영신 김중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철수 유영남 김태경 김형욱 김혜라 나희덕 문금석
박기원 이미영 박숙영 박옥순 박인혁 고숙이 박창운 허정운 박해남 배강우 백원선
변재민 이소혜 변희영 안인영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수진 서원금 서정순 서혜원
신동완 신영신 심창현 안길상 이형숙 안미순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안홍숙
홍순구 양정규 오유경 김현동 오진훈 노순옥 유경주 유명호 지성진 유무영 백현주
유수진 윤성종 김윤정 은종인 이미휘 이범석 류정옥 이수자 이왕준 송상경 이재삼
전정현 이종후 임광호 임주빈 최현옥 임찬양 임찬양 장기환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전찬익 이은자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정성식 정성훈 정영례 정종삼 정현숙 조병무
송양진 조영훈 조치형 주은경 지윤미 최 숙 최영민 이상미 최윤화 최정우 이윤숙
최 현 최형균 강경화 추광미 하상애 한상경 한상의 정영선 한선희 한성건 정지혜
허신열 홍춘숙 무명1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우진 김옥곤 김유석 김일재 김정완 서담이 김중수 이순정 나영란
박장영 정인숙 박재영 이현정 방종미 송유나 신기호 안현호 엄충명 오이새 최은별
유명호 지성진 유지은 이고임 이미혜 이소영 이유일 김미희 장기풍 정미경 정재운
채일석 최정우 이윤숙 함정희 허명선 무명7

생일감사헌금 무명1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기석 김영호 김영희 오은영 이고임 이영하 이정하 최가운 무명2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재무부 회의 : 재무부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3. 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입교하길 원하시는 분(유아세례를 받은 만 18세 이상의 교우)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교교육은 21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4. 도움 요청 : 내년도 교회 표어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을 캘리그래피로 써주실 분이나 이미지로 그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주보 표지용) 담당자 이메일은 nanumgg@gmail.com입니다.
5. 신앙실천 : 막말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말 살이를 돌아보며 사십시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히 13:1~3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하현철	김종성	김재홍
12월	1부 영접위원	김태정	헌금위원	권미정	
	2부 영접위원	김정민 박석희	이주경 조항미	신영신 안상숙	
	2부 헌금위원	추현영 김경혜			
식당봉사	오늘	찬양대			
	다음주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임고은 박준민	김정우	
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오늘) 6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2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